

여러분의 건강은 안녕들 하십니까?

KTX 자회사 = 철도민영화 ✓
 병원 자회사 = 의료민영화 ✓

의료비와 약값 폭등시키는 의료민영화 중단!

박근혜정부가 철도에 이어 전면적인 의료민영화를 하겠다고 합니다. 철도민영화처럼 병원들이 영리 자회사를 설립해서 병원이 주식회사로 만들어주고, 주식상장도 가능하게 허용해준답니다. 환자 치료용 MRI, CT와 같은 의료기기나 봉대나 수술도구 같은 의료용품 등을 병원 부대사업으로 해서 '자회사'로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병원에 가면 꼭 필요한 지 알 수 없는 검사와 비보험 치료재료와 병실료 때문에 의료비가 너무 비쌉니다. 그런데 이걸 아예 영리 주식회사로 할 수 있도록 한다면 의료비가 얼마나 폭등하겠습니까? 게다가 대기업체인약국도 허용해 약값은 더 비싸집니다. 의료민영화를 해 국민 호주머니를 더 털겠다는 박근혜 정부는 누구를 위한 정부일까요?

올해 건강보험 6조 흑자! 돈 없어 아파도 참는 국민들!

건강보험이 올해 6조나 남았답니다. 병원가면 건강보험 외에 추가로 내는 돈이 많아 서민들이 병원 안가고 끄꿍 참으며 일했기 때문에 남은 돈입니다. 부자들은 돈 펄펄 쓰면서 골프치고 다닐 때 우리가 아픈 몸 참으며 '절약' 해 준 돈이 6조원이 되는 셈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그 돈으로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일 생각은 안하고 말도 안되는 원격의료니 뭐니 IT재벌기업에게 퍼주려고 합니다. 지금 국민이 더 힘들니까? 병원이 힘들니까? 국민이 낸 건강보험료는 국민들 건강을 위해 돌려주어야 합니다. 건강보험을 위협할 영리병원 허용은 절대 안됩니다.

나와 우리 가족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의료영리화·의료민영화를 막아냅시다! 국민의 힘을 보여줍시다!

철도와 의료는 국민의 것입니다. 건강보험도 국민의 것입니다. 철도와 의료 민영화하면 철도이용료와 의료비가 폭등합니다.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더 팍팍해집니다. 철도·의료민영화를 막아냅시다. 우리의 건강과 가족과 이웃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뽕뽕 뭉쳐 민영화를 막아냅시다.

철도는 국민의 발! 철도파업 지지 민영화 중단!

철도가 민영화되면 비용인상은 물론이고 특히 철도 사고가 빈발하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습니다. 영국의 경우 철도 민영화 이후 가장 문제가 된 것이 열차 사고입니다. 크고 작은 사고가 끊이지 않았고, 사망자도 급증하였습니다. 민영화된 철도회사들이 돈 버는데 혈안이 돼 안전시설에 대한 투자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철도민영화를 막기 위한 철도노동자들의 파업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파업입니다. 철도 파업은 정당합니다! 오히려 민영화를 추진하는 박근혜정부의 노동자들에 대한 고소·고발과 징계가 불법입니다. 철도민영화 중단만이 철도노동자들을 일터로 돌아가게 할 수 있습니다. **철도민영화를 중단하라!**

